

Vol.177

JAN+FEB
2025

원자력연료

KNF MAGAZINE

소통의 온도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서로가 꼭 필요한 온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말로 소통할까요?

소통

 **한전원자력연료**



QR코드를 통해 미래를 위한 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의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세요.

KNF MAGAZINE
원자력연료

JAN+FEB 2025 Vol.177

한전원자력연료



누군가의 한마디로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전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가 내 옆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미리 그 시간을 겪었다면 손을 꼭 잡고 한마디 건네길 바란다. 문득, 요즘은 늙은이도 젊은이도 사람을 기다린다는 나태주 시인의 한마디가 떠오른다.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도서 <소통의 온도> 중에서

격월간 <원자력연료-KNF매거진>을
모바일로도 만나요



안드로이드용 ios용

KNF MAGAZINE



KNF MAGAZINE
JAN+FEB 2025
Vol.177

발행일
2025년 2월 10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발행인
정창진

편집실
소통협력실 042-869-3444

기획·디자인·제작
(주)이람

KNF-LIVE

- 04** 신년사
- 06** 리더 메시지
수출계약 1조 원 달성, 글로벌 원자력 주기 회사 도약
- 08** 요즘, KNF는
한전원자력연료의 뉴스
- 12** KNF ATTITUDE
소통의 온도
- 14** 배움톡톡
소통의 기술?! 나와 세상과의 관계 맺기

KNF-INDEX

- 18** 전지적 개발시점
더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사고저항성 연료
- 20** 원자력 알쓸신잡
왜 다시, 원자력이 뜨는가?
AI 기술과 접목된 원자력의 미래
- 24** KNF 선구자들
전의마을 도서관장님이 말해주는
미래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 원자력

KNF-LIFE

- 28** 안전알림 KNF
2025년 달라지는 산업안전
- 32** 열정 뽀뽀!
떡 위에 피어난 꽃, 마음을 담다
양금플라워 떡케이크 원데이클래스
- 36** 구독해 드립니다
비타민 가득, 과일 한 박스에 담은 마음
- 40** 배달의 KNF
건강을 바라는 마음, 배달 완료!
- 44** 문화살롱
책이 돌아왔다, 텍스트 힙
- 46** KNF ON AIR
노노그램 1+2월호 문제 & 행운의 딱지 안내



새해
乙巳年
아침

한전원자력연료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의미하는 ‘푸른 뱀’의 해(年)을 사년이 밟았습니다. 새해에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바탕으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통찰력과 도전의 용기로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4년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해외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UAE 핵연료공장 건설사업과 팀코리아로 참여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정부 경영평가에서 회사 설립이래 최초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지표에서 최고등급과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3공장의 상업가동과, 고유연료모델인 HIPER16의 상용발전, 그리고 고유설계코드의 본격적인 적용(OPR원전) 등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제조회사로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값진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애써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회사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주신 안희중 위원장님과 노동조합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KNF의 영역확장을 위한 노력을 준비할 때입니다. ‘수출계약 1조 원 달성, 글로벌 원자력 주기 회사 도약’을 기치(旗幟)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를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K-Nuclear Fuel의 해외사업 영역 확대입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와 AI 전력수요 영향으로 글로벌 원전 산업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50년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더불어 서방국가 중심이던 공급망 재편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퀀텀 점프(Quantum Jump)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전수출 Team Korea에 적극 참여하여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세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과 긴밀한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바라카 원

전 후속주기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더불어 UAE 핵연료공장 계약을 완성하여 캡티브 마켓(Captive Market)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해 중동지역과 주변국가 원전수출의 글로벌 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둘째, 다가오는 SMR 시대에 게임체인저로서 위상과 역할을 준비합니다.

글로벌 SMR 시장 개막으로 안정적 연료공급과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SMR 사업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SMR 개발 선도사(先導社) 및 국내 사업참여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안정적 연료공급망 구축을 위한 선행주기로의 확장방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LEU+(Low Enriched Uranium Plus)와 ATF (Accident Tolerant Fuel) 등의 국가 기술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제고를 통한 차세대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합니다.

셋째, 디지털 KNF를 모토로 미래 혁신형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미래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를 접목시킨 혁신형 공장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LEU+ 원자력연료 제조기술과 상용화 공정을 완성하고, 이와 더불어 최신 기술에 기반한 제조공정 자동화 및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불량률 Zero, 무결점 제조공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K-MES)의 지능화와 차세대 설계환경 적기 구축과 더불어 AI 기술을 활용한 사무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 전반의 디지털 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공정효율 극대화를 위한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재무

관리 TF 운영, 표준원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정별 원가관리를 통해 생산공정 관리와 생산원가의 혁신을 이루어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도약합니다.

정부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달성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도약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주요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경영성과를 창출합니다. 아울러 윤리·준법 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활성화로 종합정렴도 우수기관의 명예를 계속 이어갑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환경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폐기물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안심기업, 환경과 안전망 1등 기업 KNF’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한전원자력연료 가족 여러분,

우리 회사는 창사 이래 부단한 노력을 통해 굴지의 원자력연료 전문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묵은 허물을 벗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합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사탈고피(蛇脫故皮)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 노력한다면, 새로운 영역확장을 이루어 내고 글로벌 원자력연료 주주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KNF인상과 청렴인상을 수상하시는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 정창진

수출계약 1조 원 달성

글로벌 원자력 주기 회사 도약

CEO
경영철학



1. K-Nuclear Fuel, 해외 영역 확장

- ◎ 사업영역 확대로 수출 대상국 2배 Quantum Jump 도전과제
 - (기존 대상국) UAE, 미국, 브라질
 - (목표 대상국) UAE, 미국, 브라질, 체코, 영국, 일본
- ◎ 글로벌 거점 지지화를 위한 핵연료공장 수출 사업 추진
 - 권역별 수출 허브 구축을 위한 핵연료공장 협력 사업 추진
 - 기관 최초 공장수출 사업 성공적 완수 및 Track-Record 확보로 신규 사업모델 창출
- ◎ KNF형 수출모델 구축으로 해외사업 성과 창출
 - SMR 연료부문 기술개발 참여를 통한 상용화 단계 수출 확보
 -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프렌드쇼어링 강화를 통한 수출성과 창출



2. SMR 시대 개막, 게임체인저 KNF

- ◎ SMR 사업전략 수립 및 선행주기 확장 추진 도전과제
 - 글로벌 SMR 시장 개막으로 국내외 SMR 사업전략 수립
 - 국내외 SMR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한 선행주기 확장 방안 마련
- ◎ SMR 선도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 SMR 개발 선도사 및 국내외 사업참여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 차세대 시장선점을 위한 SMR, 탄력운전, LEU+ 및 ATF 기술개발 가속화
 - 혁신형 SMR 기술개발 가속화로 국내외 SMR 시장 선점
 - KNF 주도 LEU+ 및 ATF 국가 기술개발과제 추진으로 안전성·환경성·경제성 제고
 - 원전 활용 확대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탄력운전 국가 기술개발과제 추진



3. 디지털 KNF, 미래 혁신 생산체계 선도

- ◎ AI 접목 미래형 혁신공장 구축 도전과제
 - 미래시장 선제적 확보를 위한 LEU+ 원전연료 제조기술 및 상용화 공정 구축
 - AI 등 최신 기술기반 제조공정 자동화 및 고도화 추진
 - 불량 Zero, 무결점 원자력연료 제조공정 구축(품질검사 자동화 등)
- ◎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능화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
 - 제조 지능화 디지털 인프라(K-MES) 및 차세대 설계환경 구축
 - AI 기술을 활용한 KNF GPT 생성형 사무자동시스템 구축
- ◎ 3대 생산혁신(생산공정, 생산관리, 생산원가)을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
 - 생산관리 프로그램 신규 도입 및 공정 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재무관리 TF 및 표준원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생산원가 혁신



4. 최우수 공공기관 KNF

- ◎ 정부 경영평가 1등 기업 KNF 도전과제
 - 정부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 선도를 통한 최우수 공공기관 도약
 - 주요사업 적극 추진으로 경영 실적 확보 및 성과 창출
- ◎ 종합청렴도 1등 기업 KNF
 - 윤리성·준법 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활성화로 청렴도 1등급 확보성·유지
- ◎ 국민 안심 환경 안전망 1등 기업 KNF
 - 스마트 안전환경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의식 제고
 - 탄소중립 전략, 폐기물 종합관리 계획 수립 및 후행핵주기 역량제고로 국민 안심 환경망 구축

KNF NEWS

한전원자력연료,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 획득



우리 회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레벨5(Lv.5)를 획득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추진 실적과 성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며, 한전원자력연료는 본 제도가 신설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에너지토피아 봉사단을 중심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결연모역 환경정화 활동, 사랑의 헌혈운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사회공헌기금인 에너지토피아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에 매월 정기 후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여 후원하는 장터 「Ready, 가치 Flex」 참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푸르미 그린스쿨」 조성 △대전지역 문제해결플랫폼 의제 「장애인보호자 심리치유 숲케어프로그램」 등 민간·공공 영역 간 협업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창진 사장은 “6년 연속 우리 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한전원자력연료,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우리 회사는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 현장에서 탁월한 품질경영 활동으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우리 회사는 2001년부터 2020년에 걸쳐 20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21회차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 회사는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안전경영시스템(ISO45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2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등 다양한 국제표준에 따른 인증 취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원자력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ISO19443:2018)을 신규 취득하는 등 품질경영체계 확보 및 대외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회사 정창진 사장은 '고객에게 만족을, 그리고 국민께 신뢰와 사랑받는 최고의 품질과 안전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

KNF NEWS

3

한필순 전(前)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 작고 10주기 추모식 진행



우리 회사는 새해 들어 한필순 전(前) 소장의 작고 10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진행했다.

한필순 소장(1933~2015)
중·경수로용 핵연료의 국산화 및 원자로계통 설계 기술에 바탕한 한국 표준형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개발하며 원자력 기술자립을 일구어냈다. 한국핵연료 주식회사의 2~4대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7~10대 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4

한전원자력연료, KNF인상 및 청렴인상 시상



한전원자력연료는 투철한 사명감과 진취적인 자세로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KNF 인상'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은 △업무혁신 △성과창출 △조직활성화 부문에서 탁월한 공로를 세운 직원들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관련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회사의 청렴 이미지를 제고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인상'을 포상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혁신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5

한전원자력연료, '온실가스 목표관리 우수' 환경부 장관상 수상

우리 회사는 17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2023년도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공공부문 대상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년도 온실가스 배출량('07~'09년 평균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여야 하며,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감축활동과 이행관리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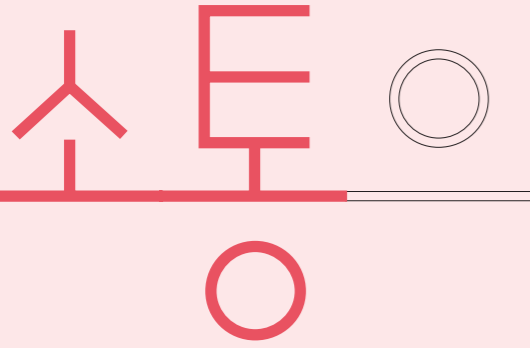
우리 회사는 고조파 제거기술 적용, 중앙집중형 냉·난방 전환 확대, 고효율 변압기 교체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실시간 전력 감시시스템 도입·운영, ESS(에너지저장장치) 확충, 레이저용접 설비 개선 등 전력사용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다이어트 10' 및 '탄소 다이어트', 종이컵 없애기, 잔반 Zero 활동, 메일함 비우기 등 다양한 사내 캠페인을 실시하고, 친환경 순환경제 형성을 위한 산업자원 재활용을 통해 '노사합동 ESG 경영' 중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을 전사적으로 실천해 왔다.

우리 회사는 이와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시행연도인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속 목표관리 달성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8년도, 2021년도에 이어 2023년도 규모별 온실가스 순감축률 우수기관으로 선정,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정창진 사장은 "향후에도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공정개선 및 기술개발 등 친환경 가치 기반의 다양한 노력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 조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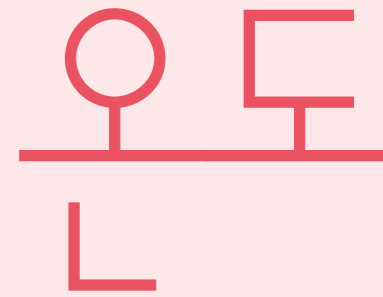


사람의 체온은 36.5°C이지만,
누군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함박눈처럼 포근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두 뺨을 에는 칼바람처럼 차갑게만
느껴지나 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서로가 꼭 필요한 온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말로

우리, 소통을 시작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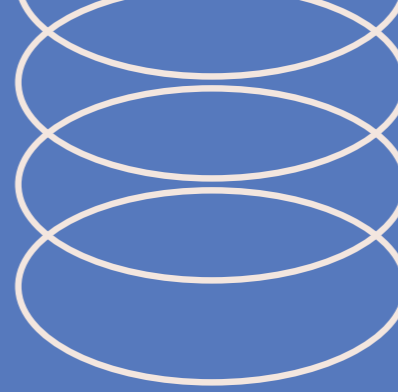
소통의 기술?! 나와 세상과의 관계 맺기

글. 김수인(휴먼컴퍼니 대표)



김수인

휴먼컴퍼니 대표, 김창욱아카데미 원장. 커뮤니케이션 전문 강사이자 심리상담사. 다수의 정부기관과 기업, 단체에서 강의를 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말하기', '인간 관계', '감정코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저서로 '소통수업'(수오서재, 2021)을 펴냈다.



통할 通, 소통의 정의

소통이란 무엇일까? 소통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으로 나온다. 결국 '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통이 원활한 사람과 불통인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무엇이 통하고 또는 통하지 못했던 것일까?

타인을 판단할 때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바탕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나는 소통 능력에 대해 관계 맺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언어 능력과는 다르다. 말을 멋지게 혹은 정확히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소통도 나와서의 관계를 잘 맺어야 쉬워진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두가 관계 맺기의 대상이다. 자신과 관계 맺기를 잘한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균형을 잃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비판단적' 말하기와 듣기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구성된 단위다. 정확하고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는 건,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동시에 놓치지 않아야 할 건, 행하는 주체가 직원들, '사람'이라는 것이다.

관계를 수월하게 맺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非)판단적 태도'다. 문제보다 그걸 다루는 사람을 향한 비판단적 말하기와 듣기, 그로부터의 질문과 이해하기를 뜻한다. 이는 무조건적 동의와는 다르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듣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향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마음대로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어떤 방향이든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판단적 태도는 말하는 자신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소통을 위한 말하기는 문제 해결 이전에 사람과의 연결이 우선이다.

게임의 법칙, Your turn

판단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할 만한 잣대라면 다행이다. 상당수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롯된 기준을 들이밀 때가 많다. 경험이 많고 지위가 높을수록 선명하게 드러난다. 판단적 태도의 말하기는 지시와 강요를, 나아가 비난과 합리화를 일삼는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판단적 태도로 말하는지 돌아보자. 그때 상황은 어떠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도 보자. 무엇보다 판단적 태도는 상대의 말을 온전하게 듣는 데 방해가 된다. 듣는 데에 쓸 에너지를 판단에 써야 하니, 이는 당연하다. 상대를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윗놀이에 듣기를 비유한다. 상대가 윗을 놀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대가 윗을 온전히 놀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 상대를 방해하면서 내가 윗을 놀면 반칙이 된다. 'It's your turn! 당신 차례입니다' 듣기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차례에 온전하게 윗을 내어 주어야 한다. 게임의 규칙이자 예의다.

우리는 어떤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규칙을 어긴다. 지위가 높고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 비단 조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통이 필요한 모든 관계의 기본이다. 부부, 부모와 자식, 친구 사이 등 친밀한 관계일수록 소통이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보면, 오랜 시간 함께 했고 서로를 알고 있다는 함정이 판단적 태도로 듣고 말하게 하는 것일지 모른다.

소통은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한 노력과 자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바탕이다. 불통이라고 생각될 때 자신의 말하기를 적어보자. 그런 다음 그 말이 판단적 말하기였는지 분별해보고, 다시금 비판단적 말하기로 적어보자. 반복된 훈련을 통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의 말하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소통의 핵심 기술, 건설적인 피드백의 5가지 요소!

소통에서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드백이다. 특히 협업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직장에서는 피드백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 역시 자신의 저서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피드백이야말로 성과를 높이는 사실 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심과 인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건설적인 피드백의 요소 5가지를 살펴보자.

1

**피드백의 순서
Good thing First**

심리학에서는 '초두효과'라는 것이 있다. 처음 제시된 정보나 인상이 추후 얻은 정보보다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현상을 말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에서도 그 이전에 '연결이 먼저'라는 점을 기억하자. 소통을 시작하는 말이 상대방과의 연결을 좌우하고, 그에 따라 말의 전달력도 달라진다. 일단은 상대방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상황에 근거한 내용
Fact base**

할 말을 전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자. 예를 들면, '12월 30일 마감인 보고서 제출기한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어요'와 같은 표현이다. 상황이 아닌 대상에게 집중하는 표현을 쓰면, 대개 2가지의 자세를 취한다. 공격과 회피다. 상황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 순간을 모면하는 단기적 회피성 발언으로 모면하거나, 상황이 해결되어도 심리적 회피 성향이 이어진다.

5

**피드백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
Be helpful**

피드백은 퍼즐의 한 조각처럼 상대의 퍼즐을 완성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지적에 그치게 되면 피드백의 목적인 '성장'에는 의미가 없다. 피드백 역시 소통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말을 하는가? 전달하기에 목적을 두는 말하기도 있지만, 관계에서는 표현과 적용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소통의 목적이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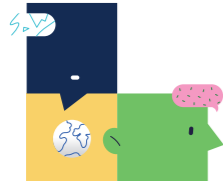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Order of priority**

경험이 쌓인 선임자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실수를 단번에 찾아내는 것이 참 신기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다. 당연히 시간과 경험에 따른 결과다. 그래서 선임자이자 책임자가 되었다. 선임자가 보이는 그대로를 피드백한다고 해서 후임자가 모두 해낼 수 있을까? 결국은 다 해낼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알고 그것에 집중한다. 그리고는 그에 따라 인정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열정을 이끌어낸다. 'Step by Step'이다.

3

**적절한 시기는 바로 지금
Right time**

피드백은 언제 주는 게 바람직할까? 긍정적이든 수정이 필요한 것이든 '바로 지금'이다. 만약 좋은 피드백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듣게 되면 어떨까? 물론 관계에 따라 의도한 그대로 전달이 되기도 하지만, 만약 불편한 관계라면 '뭐야? 갑자기', '무슨 의도지?'라는 반감과 의문을 갖기도 한다. 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황을 뒤늦게 전달하게 되면, 상대는 그것을 배려라고 여기는 대신 '왜 이제 와서?' 하며 이미 다 지난 일에 뒤끝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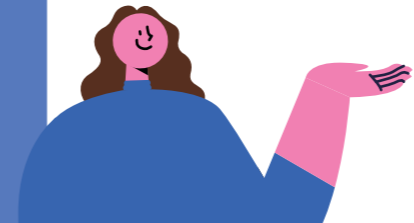


소통 꿀팁! 이럴 땐 이렇게

상황 1 기존 업무 방식의 효율이 떨어져 새로운 방법 혹은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상황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기존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프로그램 잘 쓰지 않아요. 이전 버전이라 느리기도 하고요.
대부분 △△프로그램을 쓰죠. 분석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 자칫하면 프로그램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아온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기존의 방식은 이러한 부분에 최적화되어 ○○을 찾아내는 일에 적합했었습니다.
→ 기존 방식을 인정함으로써 긍정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을 분석해 내는 것이 중요한데 △△프로그램이 정확도가 높고 분석 속도도 역시 기존의 2배라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상황 2 내 일이 아닌데 질책받고 있는 상황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자료를 줬서 했으니 ○○부서에 물어보세요.
→ 자칫하면 변명처럼 들리거나 회피하는 자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이 부분이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확인을 통해 인정하며 시작합니다.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작성했는데, ○○부서는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을 해 볼게요.
→ 책임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온 수증기 환경에서 피복관-수증기와의 급속한 산화반응이 일어나면 대량의 수소 발생과 수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원전 사고다. 이러한 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KNF가 개발하고 있는 사고저항성 연료 기술을 살펴보자.

더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사고저항성 연료

사고저항성 연료란?

사고저항성 연료(Accident-Tolerant Fuel, ATF)는 원전 사고시 중대사고 지연 및 대처 시간 확보를 위한 기술이다.

원전 사고시 안전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골든 타임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 원전운영국에서는 국가 핵심정책으로 기술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사고저항성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사고저항성 연료 기술

KNF가 개발한 사고저항성 연료, ESPER™(Enhanced Safety Performance with Efficiency and Reliability)는 크롬(Cr)금속을 코팅한 피복관과 La-Al-Si(LAS) 산화물을 UO₂에 도핑(doping)한 소결체 펠릿으로 구성된다.



<ESPER™ 도식도>

사고저항성 연료 피복관

아크이온플레이팅(Arc Ion Plating, AIP)으로 고온 내산화 성능이 뛰어난 크롬을 지르코늄합금 기반의 HANA™ 피복관 표면에 20 마이크론 이하로서 코팅한 피복관이다.

주) 아크방전을 이용해 크롬 기체를 만들고, 플라즈마 상태로 크롬 기체를 이온화 후 가속시켜 지르코늄 피복관에 증착한다.(전기도금 코팅과 절대 비교 불가이다)

사고저항성 연료용 피복관은 어떤 성능이 향상되었을까?

- 고온 내산화 성능 : 기존 지르코늄 피복관 대비 1/10 수준의 고온 산화량으로 고온 내산화 성능 매우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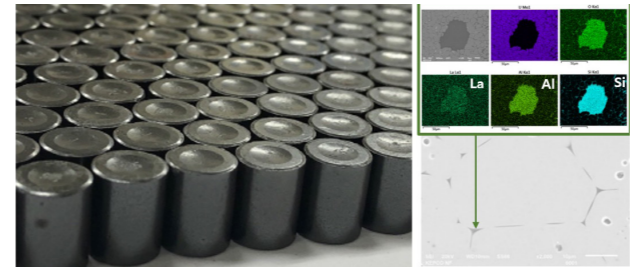
<사고저항성 연료용 피복관>

- 수소발생 저감 : 원전 사고 발생시 기존 지르코늄 피복관 대비 수소 발생을 90% 감소시켜 수소폭발 억제
- 내부식 성능 : 원전의 정상운전 조건에서 기존 지르코늄 피복관 대비 내부식 성능 10배 증가

사고저항성 연료용 소결체

소량의 La₂O₃-Al₂O₃-SiO₂(LAS) 첨가제를 첨가하여 기존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하는 핵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UO₂ 소결체이다.

소재 뿐만 아니라, 충격 저항성을 갖는 이중 Chamfer 형상을 적용하여 소결체 펠릿이 쉽게 깨지지 않게 한다.



<사고저항성 연료용 소결체 및 x2000배 확대 미세구조>

사고저항성 연료용 소결체는 어떤 성능이 향상되었을까?

- 핵분열 물질 방출 억제 : 결정립 크기를 30 마이크론까지 증가시켜 기존 UO₂ 소결체 대비 핵분열 물질 방출 30% 억제
- 고온 변형성능 향상 : 고온에서 높은 소성 변형 특성을 확보하여 사고 조건 시 소결체가 자체 소성변형을 일으켜 피복관에 인가되는 응력을 낮추어 피복관 파손 저감

사고저항성 연료, 어디까지 왔니?

연료용 피복관	연료용 소결체	연료
~2020.12.	~2018.05.	~2024.05.
Cr 코팅을 위한 4m 코팅장비 구축 완료	KNF 고유 소결체(LAS doped UO ₂) 원천특허 획득	시범연료봉 연소시험
~2021.12.	~2022.12.	~2024.12.
1m 코팅피복관 제조공정 개발 및 노외시험 평가완료	LAS doped UO ₂ 소결체 상용제조기술 확보	시범집합체 4다발 제조 완료
~2022.12.		~2025.01.
4m 코팅 제조공정 최적화 및 상용제조기술 확보		사고저항성 핵연료(크롬 코팅 피복관+성능개선 소결체) 시범집합체 출하
		~2025.05.
		상용원전 시범집합체 연소시험 착수 예정



<사고저항성 연료 브랜드 ESPER™ 런칭 및 시범집합체>

사고저항성 연료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사고저항성 연료는 높은 안전성을 기반으로 원전을 더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원전 운영을 시도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 주요 원전 운영국들은 사고저항성 연료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핵연료를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기술은 핵연료 교체비용 저감과 핵폐기물 발생량을 저감시켜 경제적인 원전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모두, 사고저항성 연료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다.

또한, 2023년 EU-Taxonomy 발효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사고저항성 연료 적용이 필수가 되었으며, 기후 변화 대응에 원전의 활용성을 확장하는 기반 기술로서 사고저항성 연료 기술의 보유 유무는 수출 시장에 새로운 경쟁력과 자격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성, 경제성 및 친환경성은 국민의 원전 수용성을 향상시켜 원전산업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사고저항성 연료 상용화와 더 안전한 미래 기술 개발

KNF는 전사적으로 사고저항성 연료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이와 더불어 열전도도 향상 UO₂ 소결체, TRISO-SiC연료 및 SiC 기반 피복관 등 차세대 사고저항성 연료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원전 안전성을 향상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할 그 날까지 KNF는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왜 다시, 원자력이 뜨는가? AI 기술과 접목된 원자력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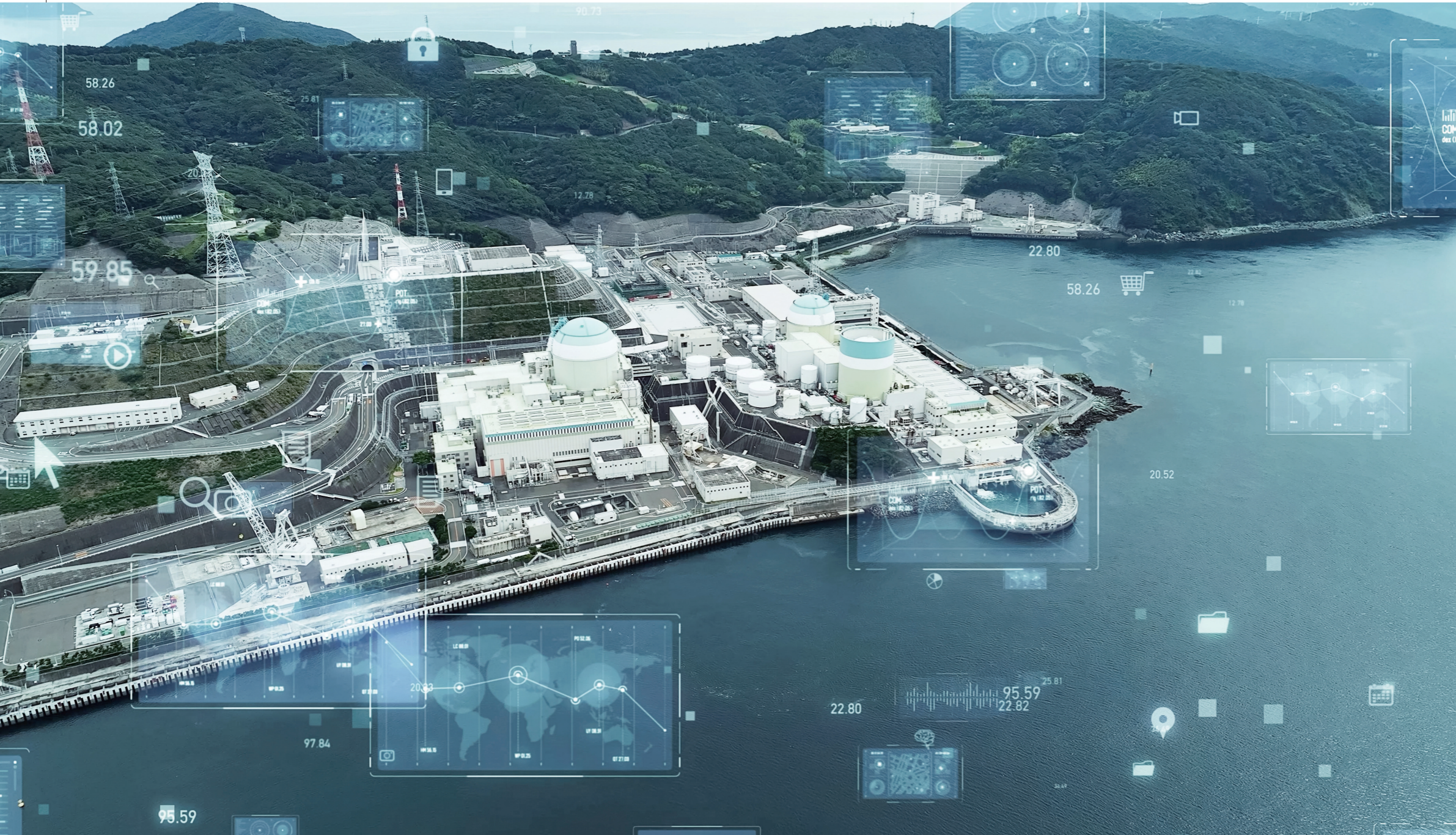
글. 이정익(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이정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이며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수출과 연계하여 아랍에미리트 소재 칼리파 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 설립에 일조했다. 혁신형 SMR 사업기획위원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 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였고,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 회원이다.



원자력 에너지 인식의 변화

원자력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화석 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화석 에너지보다 반응당 2억배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산업의 혁명이었다. 안타깝게도 원자력 에너지는 평화적 이용보다 핵폭탄 등 군사적 활용이 먼저였다. 엄청난 파괴력과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시각은 점차 기대보다 험오로 바뀌게 되었다.

1980년대 구소련의 해체로 이어진 체르노빌 원전 사고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이제 대중은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보다 위험성을 더욱 주목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급격히 줄였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국가들이 20여 개국이나 이르며, 다시금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심지어 탈원자력을 선언했던 국가들도 원자력 발전을 재시작하거나 기존에 원자력 발전을 양던 나라들도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한계

우리는 현재 인간이 배출한 이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CO₂)가 가장 높은 수준의 공기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후위기를 야기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후가 급격히 바뀌는 중이다. 우리는 발전된 현재의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미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기에는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AI 기술이나 전기차 등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된 상황이 빠르게 현실화되어,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전기 에너지의 수요는 차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재생에너지는 발전 과정에서 별도 에너지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계속

씨도 무한에 가깝게 공급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인 태양은 영구적이기에 우리는 이를 친환경 전기로 본다.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이나 가스 발전을 태양광·풍력·수력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생성을 늦추거나 멈추는 데 재생에너지는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편리하게 사용 중인 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전력망 단위 또는 국가 단위로 매 순간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기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도 정전이 발생하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도 정전이 일어난다. 전력 수요의 변화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서 현재 발전하여 공급하는 양과 큰 관계가 없다.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있을 때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출력 조절이 가능한 다른 청정 발전원이 보조하거나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수력발전의 경우,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데 이바지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의 빈번한 발생을 대비해야 하므로 이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유력한 에너지원 중 하나가 원자력이다.

원자력에 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다'는 오해를 받는다. 이는 대중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에너지 생산 후의 우라늄은 방사성 물질로 변하여, 인간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물질이다. 따라서 방사성 물질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거나, 원자력 발전소에 아무런 안전 설비가 없다면 원자력 발전은 분명 위험하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은 철저한 통제 속에 안전하게 관리된다.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다중 안전 개념을 적용해 그 위험성이 급격

히 낮아졌다.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안전성은 설계와 제작 단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해야 그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도 이미 70년 가까운 기술 축적을 통해 안전하게 설계 및 제작, 건설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운전원들도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해진 운전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원자력 발전의 문제로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해결 불가능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최종 처분할지 지난 70년간 수많은 국가가 고민해왔다. 오랜 기간 고민하고 정책의 결정도 더디다 보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오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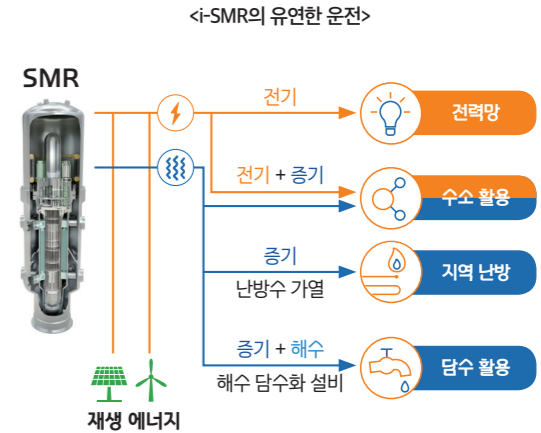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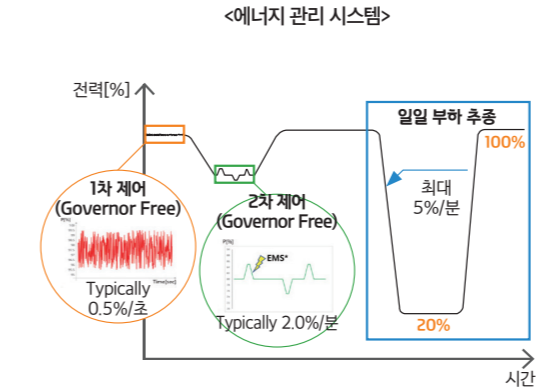
사용후핵연료의 해결을 오랫동안 고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용후핵연료를 단기간에 한해 수조에 저장하면 되었고, 발전한 에너지의 양에 비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원자력은 화학 에너지보다 동일한 반응 횟수에서 2억배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에 비례해 폐기물의 양도 화학에너지를 사용하는 석탄이나 가스보다 그 양이 매우 적다.

둘째, 사용후핵연료는 에너지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로 처분할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했다. 이제는 유럽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정책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동일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본다. 즉,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해결 중이다.

하지만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재생에너지도 공통적 문제가 있다. 지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직접 발전을 하지 못한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지역은 통상적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대도시나 산업단지 인근이 아닌 경우가 많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도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설정으로 인해,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건설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로부터 얻은 전기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 국가에서 송전선로의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엄청난 투자의 필요와 더불어 무탄소 에너지 보급에 중요한 걸림돌이다.

탄소 중립의 비타민, 소형모듈원전(SMR)

기존 무탄소 에너지의 한계를 해결할 기술이 여기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며 전력 수요지 근처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 SMR(Small Modular Reactor)'이라는 기술이다.



SMR은 원자력 발전소지만,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 기술이다. SMR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절대적 안전성이다. 애초 방사성 물질이 적은 SMR은 운전원의 실수나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하여도 누출이 원천봉쇄되어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 때문에 SMR은 원자력 발전소 부지 이외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별도 설정이 불필요하고,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수요지 인근에 곧바로 건설할 수 있다. AI 및 데이터 센터와 같은 IT 산업이나 반도체 생산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안전해서 SMR은 신뢰성 있는 기술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현재 SMR은 경제성이 낮아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빠르게 극복할 것으로 내다본다. 재생에너지도 최초에는 경제성이 낮아서 비싼 에너지였지만, 시장 수요로 인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성이 좋아졌다. 때문에 SMR도 필요로 하는 시장이 날로 확장되고 있어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성이 좋아지고 값싼 청정 에너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은 2030년대에는 가동을 시작해 우리나라 전력망 안정 및 무탄소 전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자력은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이면서 중요하다. AI 기술로 급격히 달라질 미래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대량의 전기를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1950~60년대에 지난 1세대 원자력 발전소가 출현한 이래, AI 기술과의 접목으로 안전성이 극대화된 SMR과 4세대 원자력 발전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놀라운 기술이 적용된 이러한 혁신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기존 2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부정적 사례로 인해 우리가 가졌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SMR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원자력 에너지 활용은 인류가 풀어가야 할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SMR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절대적 안전성이다.

SMR은 높은 안전성으로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하여도 방사선에 의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알아두면 좋을 쓸모 있는 지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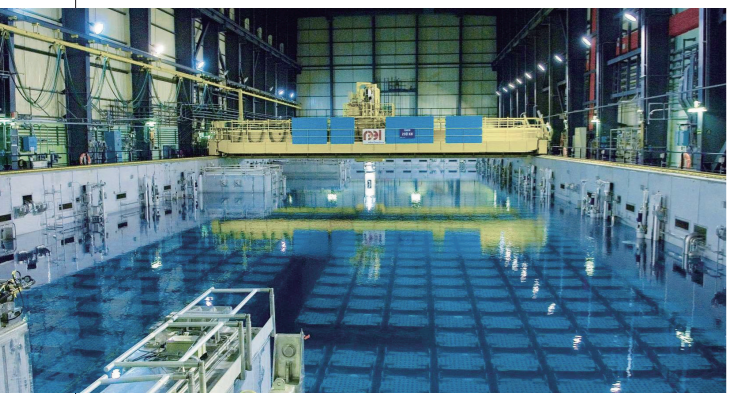
<지구를 본뜬 원자력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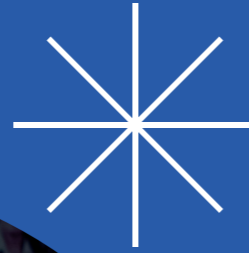
필자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의 근원은 원자가 아닌 원자핵에 있고, 나아가 원자력 발전소는 많은 종류의 원자 중 유독 우라늄이라는 원자의 원자핵에서 에너지를 추출해 발전하기 때문에, '우라늄 발전소'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 글의 제목은 '원자력이 왜 다시 뜨는가?'가 아니라 '우라늄이 왜 다시 뜨는가?'가 적절할 것이다.

우라늄은 지구에서 인간이 채취할 수 있는 자연계의 광물 중에서 원자 하나 질량으로는 가장 무거운 원자이며, 태양계의 천왕성(영문명:우라노스)에서 이름을 딴 원소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우라늄 원자에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유도한, 대중들에게는 E=mc²로 더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이용해 대량의 에너지를 얻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지구라는 행성에도 우라늄이 우리가 사는 지표면 아래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서 우라늄의 핵에너지로부터 지구의 내핵과 외핵, 그리고 맨틀 대류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일정 부분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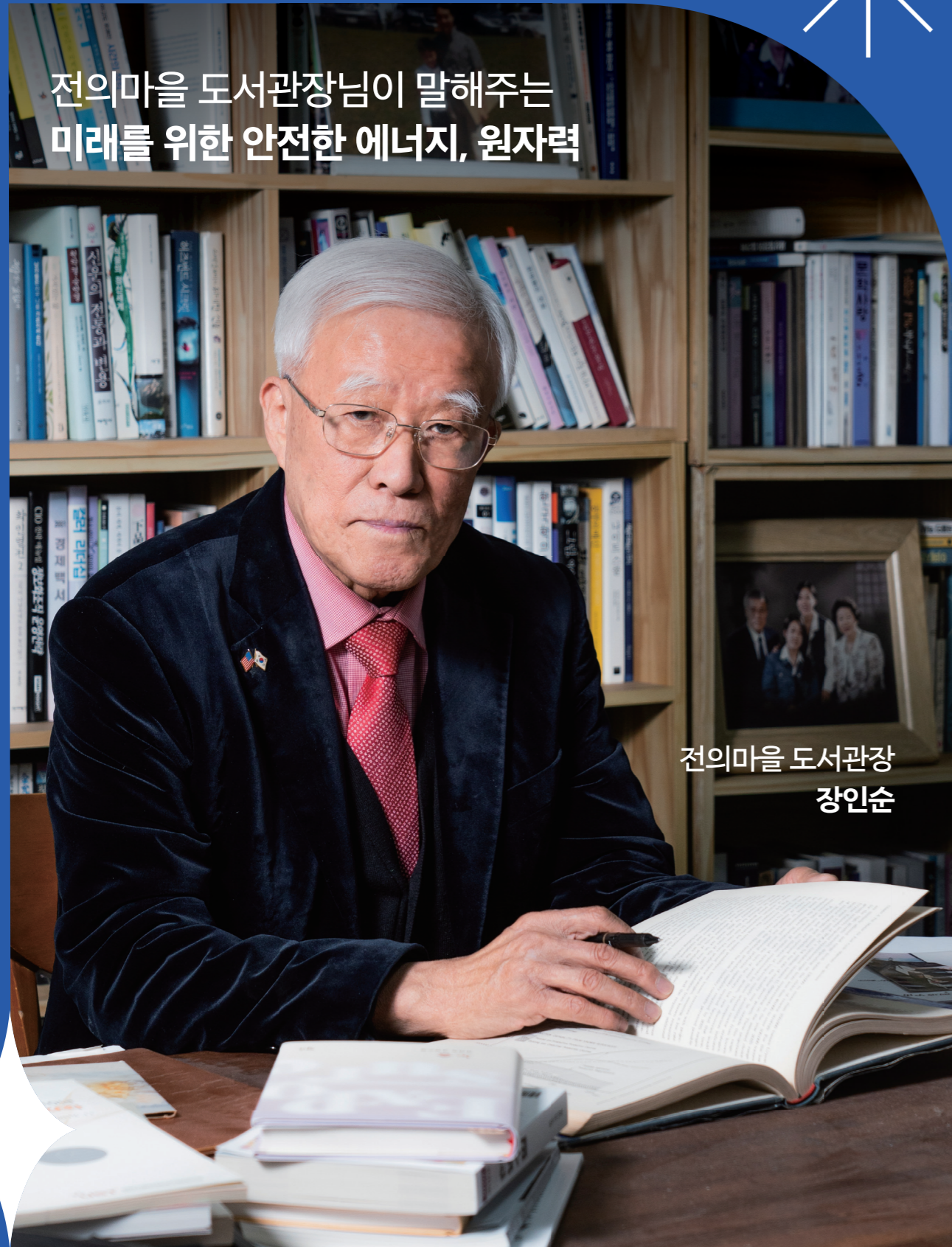
과장을 약간 보태자면 핵융합발전이 지구 위에 인공 태양을 구현해 에너지를 얻고자 한다면, 현재의 원자력 발전은 이미 지구에서 행성의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의마을 도서관장님이 말해주는 미래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 원자력

전의마을 도서관장
장인순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 그 이름의 무게를 마땅히 짊어지는 이가 있다. 1979년부터 2009년 퇴임할 때까지 30년을 오롯하게 원자력연구에 바친 장인순 前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이다. 그를 만나기 위해 사계절의 청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세종시 전의면의 대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정직한 도서관, 전의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글. 문예은 사진. 황지현

❶ 반갑습니다. 장인순 관장님. 은퇴 후 전의마을 도서관을 건립하고 관장님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전의마을 도서관은 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이 모두 합쳐진 문화 공간이에요. 책을 읽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도 하지요. 내가 자란 여수의 섬마을에서는 과학책이 귀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라 청소년과 함께 공부하고 꿈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학생들도 행복하고 나의 노년도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죠. 거기다 적당한 부지를 찾았다는 말에 가보니 21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기업인 콜마B&H를 시작했던 전의면이었어요. 2004년 설립 기념으로 테이프를 자른 후 와본 적 없었는데, 꼭 하늘의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❷ 30년간 원자력연구를 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역 사회와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과 문학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상상력과 창의력을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의 그 혼한 모래가 과학

자에 의해 반도체로 변하면서 인간의 삶과 문화를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았나요? 이제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정은 전적으로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은 단단한 뿌리라도 같아요. 천 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가 그 뿌리 위에서 열매를 거두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 겁니다. 특히 과학은 어린이들이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❸ 미래 세대에게 과학기술을 전달하기 위해 소장 재직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던 연구나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이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원자력발전 기술 자립, RI(방사성동위원소 Radio Isotope) 이용연구 자립, 원자력연구 인력양성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자력발전 기술이 최정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SMART 해수담수화 원자로 개발,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센터 건립, 경주 양성자 가속기 건설 등을 이루어 나갔지요.

❹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소장 시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셨던 일이 있나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만든 것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꾸준히 연구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연구원들에게도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철저히 관찰하고 기록하라고 항상 당부했지요.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낼 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도맡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원들은 연구실에서도 같은 태도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안전을 만들어 나갑니다.

장인순

前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前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원자력에너지 자문위원
前 핵연료주식회사 초대 핵연료 생산본부장 및 고문
한국과학문화재단 선정 '달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10인'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상
現 전의마을도서관 관장





❶ 그렇지만 도전적인 순간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순간이 인상 깊은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시작하는 핵연료 국산화를 위해 연구원들과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험하면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후로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소장이 되어 보니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공무원을 설득해 큰 예산을 확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2000년대 초 양성자 가속기 건설비 1,390억을 위해 기획예산처 과장을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왜 양성자 가속기를 건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지요.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선진국에 가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참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❷ 평소에도 과학자들은 아주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야 하며 긍정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셨죠. 어떻게 얻게 되신 건가요?

국제원자력학회에 참석하면 동료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왔으니 마지

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자료 하나라도 더 구하도록 당부해요.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요. 유학 중 실험 폭발 사고로 입원을 하기도 하고,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고,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한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노력이 곧 재능이라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의마을 도서관에는 멋들어진 글씨로 적혀있는 글귀가 있죠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 세기도 아니고 고작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과학문화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도 다 이런 국민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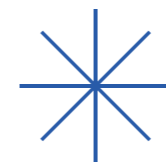
❸ 그럼에도 사람들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면 좋아하고 모르면 의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셨는데, 알아주길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인류의 역사를 끌어온 말이 '왜(Why)'입니다. 인간만이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지며 인류의 역사를 끌고 왔지요. 그 역사에는 정직성과 신뢰도 함께했구요. '왜'를 던지는 원자력인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를 던지는 원자력인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미래의 원자로는 지금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에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을 신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믿어주십시오.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미래의 원자로는 지금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과학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❶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자력은 인간의 두뇌가 만든 에너지입니다. LNG 발전은 연료비가 90%로 비중이 무척 크지만, 원자력발전은 연료값이 5%에 불과해요. 95%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인간의 두뇌입니다. 곧 고갈될 화석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 기술력을 입증해 원자력 에너지 산업에서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지요. 자랑스럽습니다.

❷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는 정직입니다. 누가 말했듯 정직해야만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어요. 내가 다루는 기계가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며 매뉴얼을 따라야 해요. 매뉴얼을 지키는 일은 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가져야 할 마음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두 발 붙이고 사는 이 땅을 지켜야 해요. 이 두 가지 덕목이 더해지면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아이젠하워는 'Atoms for Peace'를 말했지만, 이제는 'Atoms for Humanity'의 시대입니다.

❸ 마지막으로 세종시 전의마을 도서관의 관장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필드상 수상자인 일본의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쓴 '학문의 즐거움'과 이수광이 쓴 '공부에 미친 16인의 조선 선비들' 두 권을 추천합니다. '학문의 즐거움'을 읽다보면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이 공부와 연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은퇴했지만, 자리만 있다면 다시 돌아가 연구를 하고 싶거든요. 대신해 잠시 미뤄두었던 수학자의 꿈을 꺼내어 수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공부에 미친 16인의 조선 선비들'은 오래전에 읽었는데 읽으며 우리 선조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참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 자부심이 우리를 바로 세운 힘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산업안전

어느덧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인 2025년을 맞이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해를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달라지는 산업안전 정책을 재고하여 올 한해 무사고 달성에 도전해보자.

참고 2025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2024. 12. 31.)



1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개정사유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대상 국민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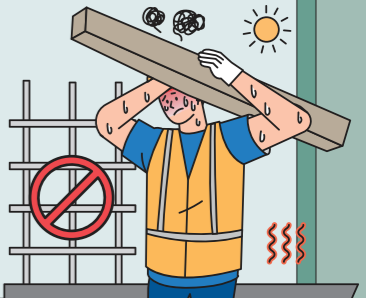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5.01.01. 시행)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개정사유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대상 사업주, 노동조합, 관리감독자 등

개정내용	현행(산업안전보건법, 2024. 05. 17. 시행)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06. 01. 시행)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인상

개정사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용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담당자

개정내용 (요약)

현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25. 01. 01. 시행)					
구분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적용비율·기초액		50억 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공사 비율
건축공사	3.11%	2.28%	4,325,000원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원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원	1.64%	1.78%

4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개정사유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단계에서 고용형태(기간제·파견근로자 등) 및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근로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후점검 확대, 인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대상 안전관리 담당자, 협력업체(중·소기업)

개정내용 (요약)

현행(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24.12.18. 시행)
◇주요내용 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받는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 ○ 위험성평가 참여공유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형태 및 국적과 상관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로 구체화(제3조제1항 제4호) 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 ○ '인정'의 의미를 「고용산재보험징수법」상 '인정'의 의미와 일치시키고, 심사기준·항목 및 배점, 인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을 고시에서 정하고, 외부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이 되도록 명시(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다.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강화
- **인정기준을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을 조정 및 감점항목 신설, 재인정 심사는 최근 3년간 위험성평가 전반을 재심사하도록 확대(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 별표)
- 라.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
- 인정기간(3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 진행, 사후점검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추가, 중대재해 발생 시 인정취소 기준 명확화(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마. 오류 정비
- 인정취소일 기준이 되는 취소 사유 조항 인용 오류 수정 및 인정사업장에 대한 감독유예 조항을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맞춰 현행화(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

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설사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대상 안전관리 담당자, 협력업체(중·소기업), 산재근로자

용자 공통요건 : '25년 기준 월평균소득 5,025,353원 이하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청대상**
- 산재 유족급여 및 상병연금 수급권자
 - 산재 장애 1~9등급 해당자
 - 산재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중 5년 이상 요양환자
 - 산재 3개월 이상 요양중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용자금액 용자한도 범위 내에서 용자종류별 중복신청 가능

의료비·훈례비·장례비 취업안정금·자녀양육비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
1,000만 원	1,500만 원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 1인당 5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1588-0075, 근로복지넷 | <http://www.welfare.comwel.or.kr>





하얀 쌀가루 위에 피어난 섬세한 꽃잎처럼, 정성과 시간이 모여 특별한 하루가 완성되었다. 한전원자력연료(KNF)의 세 명의 직원이 원데이 클래스로 함께한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새로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다. 떡 위에 피어난 꽃처럼 이들의 하루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채워졌다.

글. 권라희 사진. 황지현

떡 위에 피어난 꽃, 마음을 담다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원데이클래스



떡 위에 꽃을 피우다

지난 1월 10일, 대전 동구 백룡로의 '떡공방 시루'에 김지영, 김도연, 김예지 연구원이 모였다. 이들은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다. 공방 문을 열자 따뜻한 나무 향과 고소한 쌀가루 냄새가 이들을 감싸며 환영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도구들과 재료는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공방의 김아름 대표는 밝은 미소로 이들을 맞이하며 클래스를 시작했다. 그녀는 앙금플라워 떡케이크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며, 이것이 마음을 담은 작품임을 강조했다. "떡은 우리의 전통이고, 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낼 겁니다." 그녀의 말은 세 사람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는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한국 고유의 떡 위에 올려지는 꽃 장식은 맛은 물론이고 보는 이의 마음까지 사로잡는다. 앙금은 버터 대신 사용되며,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다. 꽃잎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성과 창의력이 깃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 그 자체다.

"오늘이 제게는 첫 번째 원데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더 기대가 큼니다." 사고해석부의 김도연 연구원이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원전 사고 분석 업무의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고, 이곳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최근 시작한 복싱도 그렇지만, 이렇게 무언가에 몰두할 때 만족감



을 느껴요" 연구원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집중력이라면 오늘 멋진 케이크가 나오겠는데"라며 서로를 격려했다.

김지영 연구원은 "평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만든 케이크로 가족들과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어요"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후행주기기술부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기계적 건전성을 평가하며, 기술적 정밀함이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오늘만큼 차분하고 섬세한 손길로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완성할 계획을 밝혔다.

김예지 연구원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니 정말 즐거워요. 더 재미있어요"라며 활짝 웃었다. 해외설계관리부에서 해외 원전 설계와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그녀는, 바쁜 업무 속에서 이런 여유를 오랜만에 만끽하고 있었다.

정성의 시작, 떡을 빚다

떡을 빚기 위한 밀작업이 시작됐다. 이는 단순한 재료 준비가 아니라, 하나의 전통을 이어가는 순간이었다. 김아름 대표는 “떡은 시간을 담은 음식이에요. 천천히 손끝으로 느끼며 빚어야 떡의 본래 맛을 살릴 수 있어요”라며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 법을 설명했다. 김지영 연구원은 쌀가루를 체에 내리며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네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맛을 좌우한다니 신기해요”라며 감탄했다. 김예지 연구원은 “과정이 복잡하지만, 그래서 더 흥미로워요”라며 열심히 참여했다. 이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던 김도연 연구원은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니 떡 한 조각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져요. 정성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겠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세 연구원들은 이런 정성들이 모여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는 거라며 서로를 격려했다.

다음 단계는 떡 찌기였다. 쌀가루를 체에 두 번 내리고, 설탕을 섞는 과정이 이어졌다. 단순해 보이는 과정에도 섬세함이 필요했다. 김아름 대표는 “쌀가루를 고르게 섞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떡이 부드럽고 쫄득하게 나와요”라며 직접 시범을 보였다. 그녀의 숙련된 손길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에 자신감이 생겨요.

스스로 성장하는 기분이에요!



한국에서 떡은 특별한 날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वाद도 같다. 생일, 결혼, 설날, 추석 등 중요한 날이면 언제나 떡이 함께했다. 김아름 대표는 “떡은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만드는 떡도 여러분의 하루를 기록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 사람에게 떡 만들기의 의미를 새롭게 각인시켰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 정성이 필요한 작업 같아요.” 김지영 연구원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스크래퍼로 떡의 윗면을 평평하게 다듬으며 꼼꼼한 손길을 더했다. 김아름 대표는 “그 섬세함이 케이크에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찜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동안, 세 사람은 공방 안을 둘러보며 휴식을 취했다. 쌀가루가 점차 떡으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모두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스며들었다.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과정이라, 그만큼 결과가 더 기대됩니다.”라며 김예지 연구원이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오늘 만든 작품을 다가올 집들이 음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친구들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 더 기대돼요!”라고 말했다.

마음을 담은 색과 꽃

떡이 완성되는 사이, 앙금을 조색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김아름 대표는 “색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도구예요”라며 앙금 조색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은 각자의 감정을 담은 색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꽃잎을 찌기 시작했다.

김지영 연구원은 따뜻한 핑크와 화이트를 섞어 부드러운 작약을 완성했다. “작약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꽃이라, 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라며 꽃에 담긴 이야기를 전했다. 김예지 연구원은 차분한 톤의 색감을 선택하며 떡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했다. “논리적인 일에 익숙한 제게는 이런 창의적인 과정이 새롭게 다가와요.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꽃잎들이 소소한 성취감을 주네요.”라고 말했다.



김도연 연구원은 앙귀비를 만들며 꽃잎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완성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에 자신감이 생겨요. 스스로 성장하는 기분이에요!”라고 말했다. 김아름 대표는 “앙귀비는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오늘의 테마와 잘 맞는 선택이네요”라며 그녀의 노력을 격려했다.

세 사람의 손끝에서 탄생한 꽃들은 각자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떡 위에 놓일 꽃 한 송이마다 정성과 진심이 스며들어 있었다.

함께한 순간, 피어난 의미

이번 원데이 클래스는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공통된 관심사로 모여 유대감을 형성하고, 개인적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가 함께 웃고 배운 이 순간들이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믿어요” 김도연 연구원은 클래스가 끝난 후 말했다.

이번 경험이 일상의 단조로움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들이지만, 클래스에서 나눈 대화와 웃음은 업무와 일상에 새로운 에너지를 더할 것이다. 떡 위에 올려진 꽃처럼, 이들이 만들어낸 시간은 소중하고 특별했다.

오늘의 특별한 경험이 각자의 일상에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기를 바란다. 이들의 정성과 웃음으로 완성된 플라워케이크처럼, 앞으로의 한 전원자력연료(KNF)도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MINI INTERVIEW

오늘 클래스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은 무엇인가요?



김지영 연구원(후행주기기술팀)
정성과 기술이 필요한 작업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날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김도연 연구원(사고해석부)
동기들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업무에서도 더 돈독해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김예지 연구원(해외설계관리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기쁨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눌 기쁨을 배웠습니다.



비타민 가득, 과일 한 박스에 담은 마음

따뜻한 방안에서 함께 둘러앉아 까먹는 귤, 눈처럼 하얀 생크림 위에 올라간 새콤한 딸기, 진한 단맛에 쫄쫄한 식감까지 다 담은 감말랭이까지. 입안에서 겨울을 즐기고 다가올 봄을 맞이하는 마법! 바로 제철 과일이다. 가장 맛있을 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과일 구독 서비스를 살펴보자.



이희건 조직예산부



과일 구독은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했고, 좋은 기회로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배송 날짜가 딱 설 연휴와 맞닿아 있어서 본가로 과일을 보냈고,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직접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과일이 참 맛있어 보여서 빨리 집에 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과일들을 냉장고에 보관해두셨거든요.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얼른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저는 특히 골드키위가 맛있어서 혼자 두 개는 먹은 것 같습니다. 하하!

얼굴 보기 힘든 가족들과 설 연휴에 과일을 나눠 먹으면서 떠드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주말뿐이다 보니 가족들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바쁨을 핑계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쉬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일 구독 서비스로 한번 더 다짐했습니다. 다 같이 쉬는 연휴일수록 꼭 가족들과 봐야겠어요!



권혜영 총무부



본가를 떠나 홀로 지낸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본가에서 지낼 땐 부모님께서 틈틈이 과일을 챙겨주셨지만, 혼자 지내니 과일을 사서 먹을 생각조차 못 하고 지냈네요.

이벤트로 받은 상자에는 부사사과, 제주산 한라봉, 나주배, 골드키위, 그리고 처음 보는 초코대추방울토마토까지 등 과일이 한가득 푸짐하게 담겨있었습니다. 푸짐한 상자를 보니 이번 기회에 챙겨 먹어보자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침으로 사과와 배를 챙겨오고, 직접 만든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를 곁들이니 간단한 한 끼 식사용으로 든든했습니다! 퇴근 후 밤에는 요거트에 키위, 감말랭이를 잘라 넣어 야식으로 챙겨 먹었습니다. 항상 간편한 음식만 찾았던 과거와 달리, 며칠 동안 꾸준히 과일을 챙겨 먹으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일 구독 서비스 덕분에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과일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방문할 때도, 가족들과 다양한 과일을 나누어 먹고 싶은 마음에 한 아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후식으로 제가 직접 가져온 과일을 손질하여 내어오니 부모님은 제가 철이 들었다며(?) 뿌듯해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새콤달콤한 과일은 포근한 설 명절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내어주시는 음식을 받아먹기에만 바빴는데, 이렇게 직접 부모님께 신선한 과일을 챙겨드리니 뿌듯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위주로 음식을 챙겨주신 부모님 덕분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릴 차례네요!



김홍석 세라믹 생산부



최근 들어 어머니께서 잔병치레가 잦아서 걱정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 비타민이나 과일 같은 작은 선물을 꾸준히 보내드리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머니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번 '구독해드립니다'의 과일 구독 서비스도 고민할 것도 없이 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 전화를 걸어오셔서 덕분에 요즘 건강이 더 좋아진 것 같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 역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로 인해 어머니의 기분이 한층 밝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회사 덕분에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로 지내는 어머니에게 가장 맛있는 제철 과일을 챙겨드리기에 참 좋은 구독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철 과일로 입맛도 돋우시고 비타민으로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유한 시설운영부



자취를 하다 보면 먹고 싶어도 잘 못 먹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니 이불 안에서 꿀을 까먹던 대학시절 옛 추억도 생각이 나고, 딸기로 산타도 만들고 누가 제일 잘 만들었는지 대결도 하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지역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부모님께서 제가 받은 잘 챙겨 먹는지 궁금해하실 때마다 괜히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과일로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일 구독 서비스는 오랜만에 다양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매번 소량으로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대량으로 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구매를 망설이다 결국 포기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먹어보는 초코대추방울토마토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본가가 아닌 자취방으로 보내 혼자 먹었지만, 푸짐한 과일 덕에 고향에서 가족끼리 과일을 먹으며 도란도란 담소도 나누던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도 탐낼 만큼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투른 경상도 아들이라 부모님께 제 안부를 자주 전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잘 지내고 있는 제 모습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건강도,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감도 풍성하게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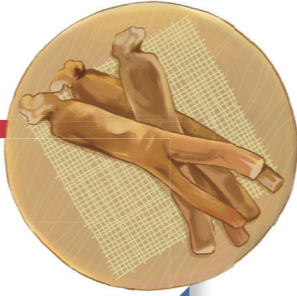




건강을 바라는 마음, 배달 완료!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때로는 너무 멀어서 우리는 서로를 생각한다.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생각하는데도 솔직담백하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 영 쉽지 않다.
사우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KNF 매거진이 나섰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과 사랑, 감사를 꼭꼭 눌러 담은 배달의 KNF, 주문!





아버지, 어머니께

2025년을 맞이하여, 좋은 기회가 생겨
작은 선물을 보내드려요!
언제나 신뢰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는 더욱 노력하여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욱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노무처 인재채용부 박종화 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신 선생님께

저는 '인연'이라 하면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이니 '인'이 '사람 인(人)'인
줄로만 알았는데, 뜻밖에도 '말미암다', '원인이나 계기로 하다'라는 뜻의
'인할 인(因)'입니다. 즉, 인연이란 어떤 이유로 말미암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이걸 알고 나니 '인연'이란 글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사뭇 더 진지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출근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인도턱에 주저
앉으셨는데, 다행히도 직장 근처라 함께 일하시는 직장동료분께서 응급실
까지 모셔다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한 인연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이상징후를 전혀 느끼지 못했었기에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란
가슴을 쉬이 진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이신 선생님 덕분에 심각한 질환은 아님을
전해 듣고서야 비로소 맘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신속하게 병원에 모셔다드린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연료생산처 중수로연료부 이승엽 님



오랜 지병인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최근에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함께 식사도 하질 못해서 마음이 통 시립니다.
아마 당신께서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배달의 KNF'를 통해 이 시린 마음을 달래고자
따뜻한 홍삼을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이 홍삼으로 제 감사함이 다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인 을사년을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엄니! 사랑합니다. ^^

소통협력실 홍보부 여용길 님



석사 지도교수님으로 만난 감사한 은사님께

25년 2월로 정년 퇴임을 맞으시다니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학부 입학 동기 4명이 같은 연구실에서 석/박사를 했었지요.
박사과정 동기 중에는 같은 연구실 후배와 결혼한 동기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만큼이나 저희에게 수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신
잊지 못할 은사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이번 호 '배달의 KNF'를 통해
은사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안전해석처 과도해석부 윤한구 님



책이 돌아왔다, 텍스트 힙

한강 작가가 2016년 부커상 수상에 이어 2024년 노벨문학상을 국내 최초로 수상하며 MZ 세대 사이에서는 '텍스트 힙(Text Hip)' 열풍이 불고 있다. 각종 OTT와 영상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곁에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가던 책. 그러나 다시금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였다. '책 읽는 게 진짜 힙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을 집어 들었다. 내 안을 충만히 채우기 위해. 책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독서는 '힙'하니까.

글 TSA 성형부 김재현

TEXT 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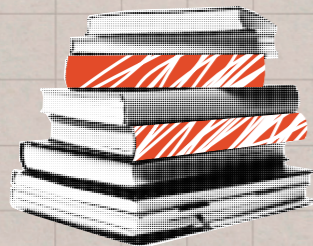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텍스트 힙'

"책을 읽는 나, 너무 멋진 거 아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로 주변에서도 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나 역시도 그렇다. 한 달에 한 권을 겨우 읽을까 했던 나였지만 '채식주의자'는 장편 소설임에도 하루 만에 완독했다. 나 혼자만의 독서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어깨가 으쓱해졌다. '나 책 좀 알고 있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데?' 텍스트 힙은 나에게 하는 칭찬이나 다름없다.

물론 함께 다짐하는 것도 있다.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던가. 이런 자만심에 빠져 몇 권의 책만 읽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저자 한강 | 출판 창비



저자 스토리프로젝트 | 출판 주니어김영사



MZ세대의 '힙한 취미로서의 독서'

성인 ADHD가 유행어처럼 떠돌던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가만히 앉아 독서를 하는 것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되다니. 그렇지만 '트렌디'하다고 해서 그 멋짐이 희석되는 건 아니다.

MZ세대 당사자로서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어 보인다. 때로는 의자가 아니라 그냥 앉을 수만 있다면 어디에라도 앉는 사람도 있다. 여행을 떠나 사막 한가운데에 앉아 사색에 잠긴 적 있다. 서점에서 책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드넓은 서점에서 책과 함께 단둘만 남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도 책을 읽으면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를 책으로 말하자면...

텍스트 힙은 단순히 독서하는 모습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테일즈런너 만화책' 시리즈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테일즈런너'라는 게임의 세계관을 다룬 만화책을 읽으면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 머니를 받을 수 있었다. 어렸을 적에는 그 게임 머니를 받고 싶어 흥미 없는 소설책 대신 만화책이라도 읽겠다며 부모님을 설득했었다. 이제 그 어린 시절은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달콤한 무언가를 얻고 싶어 책을 읽는다. '채식주의자'를 읽으며 그려지는 듯한 이야기에 두근거림을 얻고, 나를 알고자 읽었던 심리학 책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다.

아직은 독서를 자주 하지는 못한다. 멋져 보이고 싶어 집어 든 어려운 책도 있고, 사놓고는 목차도 읽지 못한 책도 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풋살이나 테니스, 클라이밍처럼 자주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숫자로 그리는 그림

노노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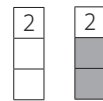
노노그램은 각 칸의 가로축과 세로축 칸에 적힌 각각의 숫자를 지도 삼아 칸을 색칠해 나가는 놀이입니다. 쓰인 숫자만큼의 연속된 칸을 칠해야 하고, 숫자와 숫자 사이는 최소 한 칸을 비워야 합니다. 숫자의 순서와 칠해진 칸의 순서는 일치합니다.



참고 동영상 QR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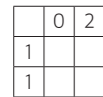
① 세로축 위에 2가 쓰여있습니다. 두 칸이 연달아 칠해졌다는 뜻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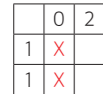
② 가로축 옆에 1이 쓰여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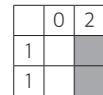
③ 그렇다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④ 우선 숫자가 적혀있지 않은 세로 줄에는 아무것도 칠할 수 없습니다.



⑤ 2가 적혀있는 두 번째 세로줄은 모두 칠하게 되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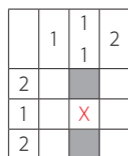


⑥ 숫자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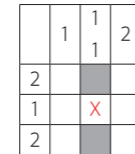


⑦ 각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한 칸이 될 수도 있고, 두 칸이 될 수도 있지요. 또한 어디에서 시작할지는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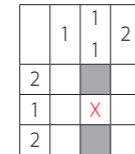
그렇다면 조건을 따져봅시다. 두 번째 세로축의 1, 1은 여백을 두고 한 칸씩 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칠하지 못하겠지요. 자연스럽게 위아래 칸을 색칠하게 됩니다.



⑧ 다음으로는 첫 번째 가로축을 살펴봅시다. 방금 전에 칠한 첫 번째 가로줄의 두 번째 세로칸(A2) 바로 양옆을 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지만 첫 번째 가로축도 2라고 적혀있네요. 양쪽 옆 중 어디를 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⑨ 그림 이번엔 똑같이 2라고 적혀있는 세 번째 가로축을 살펴봅시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가로줄의 두 번째 세로칸(C2) 바로 양옆을 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⑩ 문제의 핵심은 두 번째 가로축이 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축에 따르면, 한 칸만 칠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세로줄은 한칸만 칠해져 있고, 세 번째 세로줄은 두 개가 연달아 칠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모든 조건문을 완성하는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노그램은 논리적인 조건문을 통해 풀어나가는 놀이입니다. 각 가로축과 세로축의 숫자를 살펴 칠할 수 있는 칸과 칠해선 안 되는 칸을 구분해 보세요. 눈 앞에 마법처럼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제 연필을 들고 숫자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2	2	4		5	5	2	1	3	
	5	3	1	2				2	2	2	5
0											
2	2										
4	1	2									
2	4	2									
1	3	1									
1	2	1									
2	4	2									
2	1	4									
	2	1									
0											

HINT KNF 1+2월호 표지 살펴보기

정답을 맞췄다면 사진을 찍어 아래 큐알 코드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노노그램 정답 인증샷

마감 기한 2025년 2월 26일
 당첨자 선물 1만 원 커피 상품권
 당첨자 발표 2025년 3+4월호 KNF ON AIR



원자력연료 행운의 딱지

우편으로 도착하는 사보를 받을 때마다 설렘이 없었다고요?
 2025년엔 원자력연료 행운의 딱지를 찾기 위해 우체부 아저씨를 먼저 기다리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 매체만이 가진 아날로그의 힘 아닐까요?



인증샷 업로드 링크

